

# 사람사는 세상 1

1988년 4월 13일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화 : 47-3711~2

## 동구의 허삼수, 민정당 부정선거의 선두주자로 나서

# 타락總選 有權者도 한몫

### 후보善心공세 편승 金品요구 많아

### 바야흐로 부산에

서신 바람나는 싸움 한 판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패배도 어느 지역보다 실망과 분노가 컸던 동구, 그 동구에서 6월항쟁의 야전사령관 노무현과 12.12군사 쿠데타의 주역 총잡이 허삼수 대령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사는 세상에서 인간답게살아보고자 나선 인권변호사와 군부의 전위대로 허울좋은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을 만든, 그 자리에 전경환을 밀어준 독재의 심복. 그 누가 우리의 대표자여야 하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 났다는 대령 출신의 군바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뿌릴 수 있는가? 새마을로 사기친 돈인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시민을 살육하고 빼앗은 돈인가?

가진 것 없지만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무료변론을 수 없이 맡아온 노무현 변호사와 걸만 번지르하게 발전시키겠다는 허삼수! 그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인가? /

부산 동구에서도 이날 시민회관에서 네차례 소위 "유권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민정당 허삼수 후보가 나와 참석자들에게 1만원씩은 봉투를 주었다.

## 買票-賣票심리 겹쳐 혼탁극성

【부산특파원】 8일 부산선거대책본부의 시정판 이후 첫번째 동구지구당 후보자들의 선출과정은 민정당과 민주당의 선출과정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명의 관공사> 8일과 10일 이틀간 전 구지역에 걸쳐 관공사와 관공사관공사의 선출과정은 민정당과 민주당의 선출과정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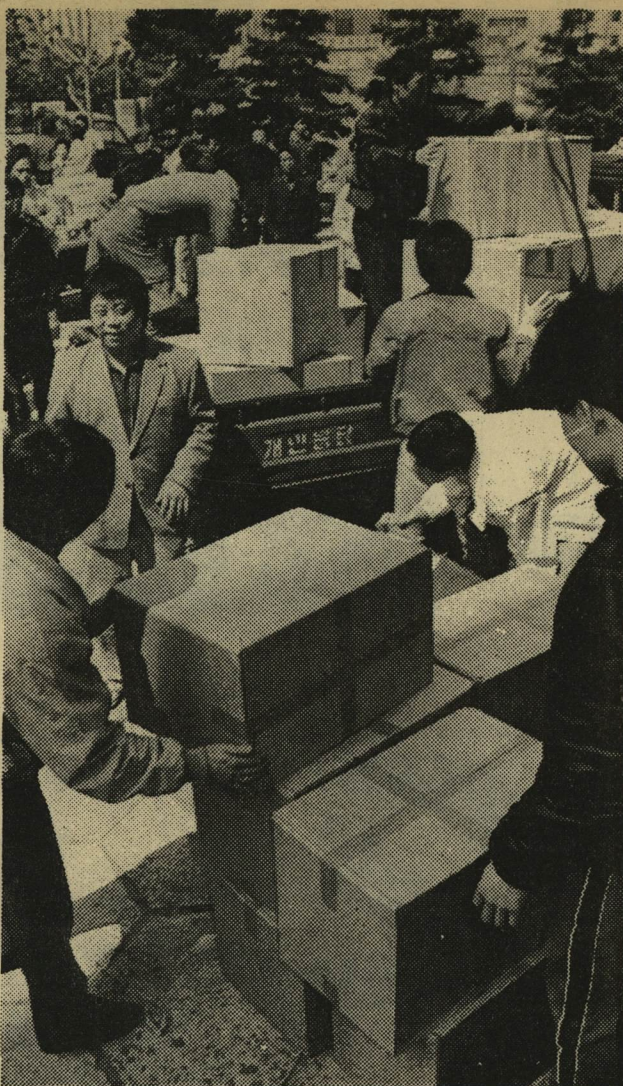
특히 유권자들의 정서상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본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특파원】 8일 부산선거대책본부의 시정판 이후 첫번째 동구지구당 후보자들의 선출과정은 민정당과 민주당의 선출과정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명의 관공사> 8일과 10일 이틀간 전 구지역에 걸쳐 관공사와 관공사관공사의 선출과정은 민정당과 민주당의 선출과정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상자 대량수송 지구당 창당대회나 당원단합대회장에서는 대회가 끝남무렵이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상자를 실은 트럭들이 나타난다. 사진은 11일 民正黨 釜山東區지구당 당원단합대회가 열린 시민회관 정문앞에서 당원들이 선물상자들을 옹달차에서 내리고 있다.

<釜山=吳岡錫기자>

『소중하고 신성한 우리의 주권은  
만원한장에 팔릴  
상품이 아닙니다』

44523

# 타락總選

## 다급해진 허삼수대령 누런 돈봉투로 표사기 바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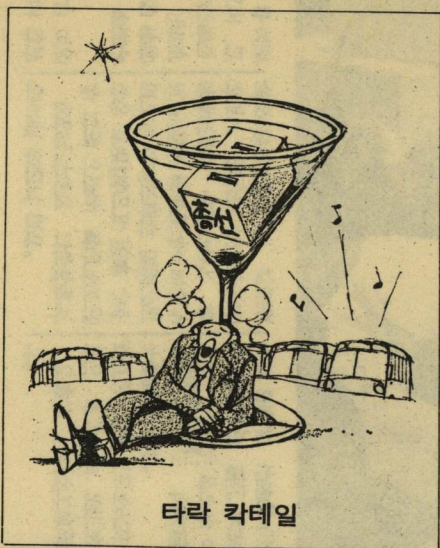
- 글썸, 동구민의 민주정신이 돈 만원으로 사질까? -

# 타락마당.. 공공연한 金品수수

名所마다 주차난... 줄이은 觀光버스 "시장터 같다"  
후보 善心공세

○釜山 東區의 民主黨公천자인 許三守씨는 10일 시민회관을 빌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른바 유권자교육을 실시. 공조적인 지도장 활동장 부활동장 활동장원교육이란 명목아래 許씨측은 예비군수송용 버스 화진화한등 기업체 버스 20여대를 동원 선거구내의 草梁 水晶洞 주민들을 대거 실어날라 선거운동을 실시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팜플렛 전달등 홍보물과 스카프및 현금 1만원이든 누런색 봉투를 전달. 이날 시민회관에 나온 주민들 대부분은 아침에 통장 또는 반장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나왔다는데 草梁洞에서 왔다는 4대 부인 3명은 『통장이 찾아와 시민회관에서 許三守씨 연설도 듣고 교통비도 준다는데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 民主黨측의 이날 교육은 한달이 보통 1시간반으로 진행됐는데 오후 2시 팀의 경우 50분간 노래자랑과 MBCTV의 「자갈치 아지매」란 프로의 원고를 쓰고 소개된 金홍오씨가 나와 許씨에 대한 소개를 30여분간 진행하고 맨마지막에 許씨가 10여분간 정치소신을 밝히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

6월 항쟁시 백골단을 실어나르던 차량으로 동구주민을 동원하다니. 글썸, 동구주민을 백골단으로 오인하셨나.



통일민주당  
기호

# 2

6월항쟁 야전사령관, 부산의 자부심

# 노무현

부정선거를 고발합니다.

선거대책본부: 47-3711-2  
선거연락사무소: 23-5511

통일민주당 동구지구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금은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반민정당 민주화운동에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함께  
다같이 나섭시다

양산 수건 萬원봉투 음료수 전달

